

CONTENTS

[1권] 개념편

PART 01 | 서론, 시작하기에 앞서 005p

PART 02 | 본론, 독해 공식 016p

CHAPTER 01 | 여는 이야기 017p

CHAPTER 02 | 평가원 지문의 뼈대를 잡아보자 : 거시적 독해 022p

Theme 1. 평가원 지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

Theme 2. 평가원은 이런 정보를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Theme 3. 행동강령 수립 :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Theme 4. 글의 목차가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CHAPTER 03 | 평가원이 지문 뼈대에 살덩이를 붙이는 방법 : 미시적 독해 128p

Theme 0. 용어의 개념 정의,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Theme 1. 난해한 문장, 이렇게 뚫어야 한다.

Theme 2. 잘 읽은 문장들, 붙여야 한다.

Theme 3. 연결과 구분에 대한 다양한 생각

Theme 4. 그때그때 마주치면 해야 하는 생각들

CHAPTER 04 | 실전 TIP 258p

Theme 1. 시각적 모델링 (지문 위에 / 지문 옆에)

Theme 2.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그런갑다”

[2권] 적용편

PART 03 | 결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CHAPTER 01 | 독해 공식, 총정리

CHAPTER 02 | 지문 초반부 독해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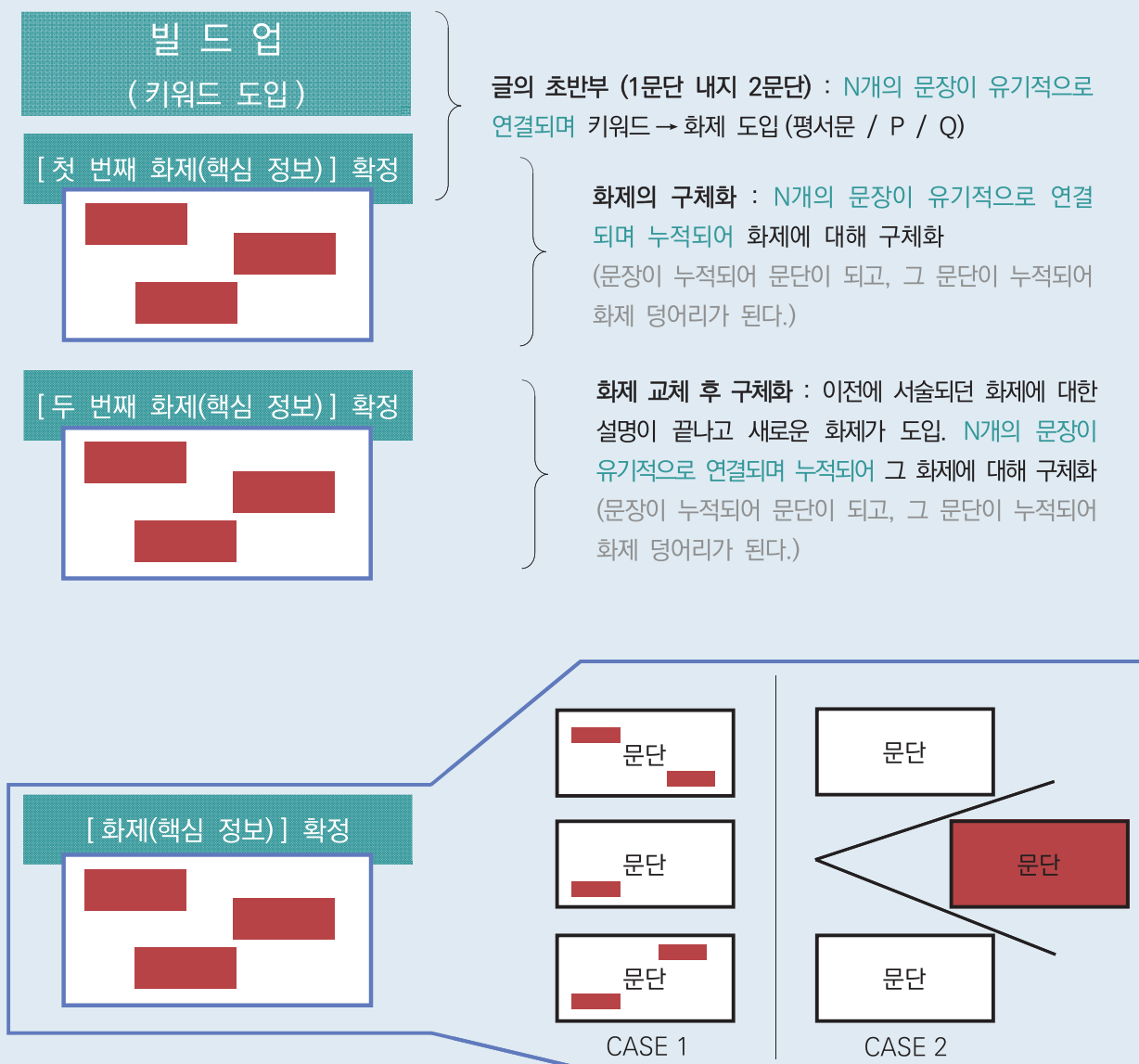
CHAPTER 03 | FULL 지문, 비독교로 뚫어보기

CHAPTER 04 | 2026학년도 수능

Theme 3.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개요]

이제 우리는 비문학 지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서술하는지 알게 되었다. 잘 이해했다면,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글이라는 정보 전달 매개의 특성상 모든 지문이 완전히 100% 아래 구조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리는 아래와 같다.



N개의 문장은 실제로 N개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한 핵심 정보가 세부 범주로 쪼개지며 구체화)
이제 이러한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행동강령을 수립할 단계다.

[Contents]

- Topic 01.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리마인드
- Topic 02. 행동강령 로드맵 세우기
- Topic 03. 로드맵을 기반으로 행동강령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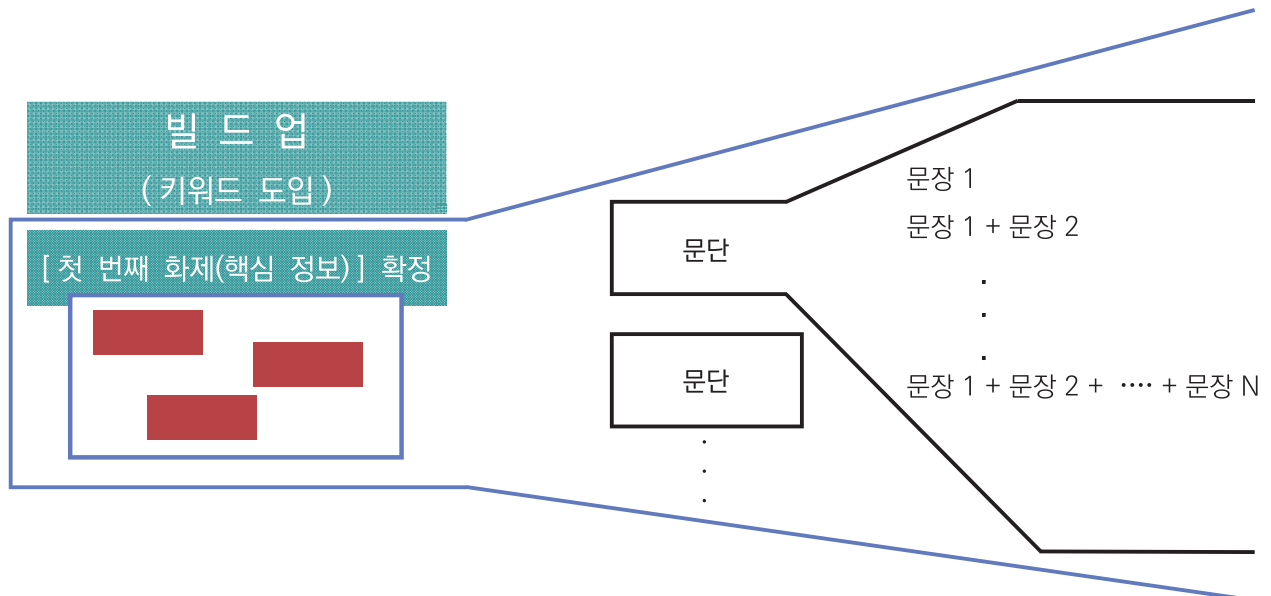
Topic 01.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리마인드

[1] 평가원 지문, 이렇게 서술된다.

대전제

- (1) 각 문단은 문장 N개의 유기적 결합이다.
- (2) 문장 N개가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이 된다. N개의 문장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다는 것은, 정보 여러 개를 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주를 살덩이를 붙여가며 구체화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각 문단의 소주제가 잡힌다.
- (3) 하지만, 결국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핵심 정보다. 핵심 정보는 문단 N개가 결합 된 ‘덩어리 형태’로 제시된다. 글은 핵심 정보라는 큰 범주 내에서 세부적인 하위 범주로 쪼개지며 구체화 되기 때문에 문단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다.
- (4) 결국, 각 문단에서 뽑아낸 소주제 간의 관계가 곧 한 핵심 정보 내에서의 정보의 구조(목차)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아래와 같았다. 이 그림을 보고 위 내용이 자동으로 생각난다면 확실하게 이해된 것이다.



→ 물론 하나의 글에는 이러한 핵심 정보 덩어리가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핵심 정보 덩어리가 저렇게 생겼다는 것이다.

→ 앞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문단은 그냥 예뻐 보이려고 나눈 것이 아니다. 한 핵심 정보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세부적인 범주로 나눠서 (상위 범주가 몇 개의 하위 범주로 쪼개지는 것) 설명할 때 흐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끊어주는 것이다. 특히 평가원 출제된 분들 같은 전문가 집단이 쓴 고도로 검증된 글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위 대전제에 ‘(4) 결국, 각 문단에서 뽑아낸 소주제 간의 관계가 곧 한 핵심 정보 내에서의 정보의 구조(목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그리고, 화제를 암시해주는 화제 제시 문장, 그리고 하나의 핵심 정보 덩어리 내에서 세부적인 하위 범주로 쪼개서 설명할 때 그 범주를 암시해주는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있으면 땡큐고, 아니어도 각 문단의 문장을 누적시켜 정보를 하나로 모으면서 범주를 스스로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화제 제시 문장과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반영되면 결국 글은 아래와 같은 느낌으로 서술된다고 정리했다.

• 화제 제시 문장과 화제 속 흐름 잡아주는 문장 •



화제 제시 문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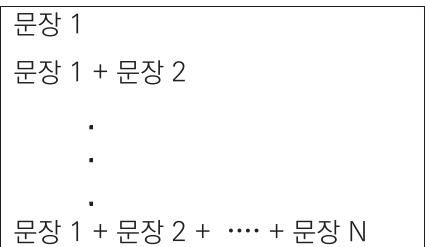
화제 속 흐름 잡아주는 문장 : —————

아 그리고, 화제가 제시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었다.

핵심 정보

- I. 키워드에 대한 특정 범주의 내용 설명 (문제점, 질문 제외) : 평서문으로 화제 대놓고 제시 or 중심 소재 정도만 잡힘
- II.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점(P) → 해결책(S) : 문제 제시
- III. 키워드와 관련된 의문(Q) → 답변(A) : 의문 제시

[2] 구체화에 대한 고찰



항상 말했던 것이 ‘문장이 연결되며 누적되며 정보가 하나로 모인다.’였다. 위 이미지가 이것을 대표한다고 보면 된다.

이것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항상 명심해야 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글쓴이의 의도도 이 핵심 정보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문장이 앞에 누적되어 왔던 문장에 살덩이를 붙이면서 점점 완벽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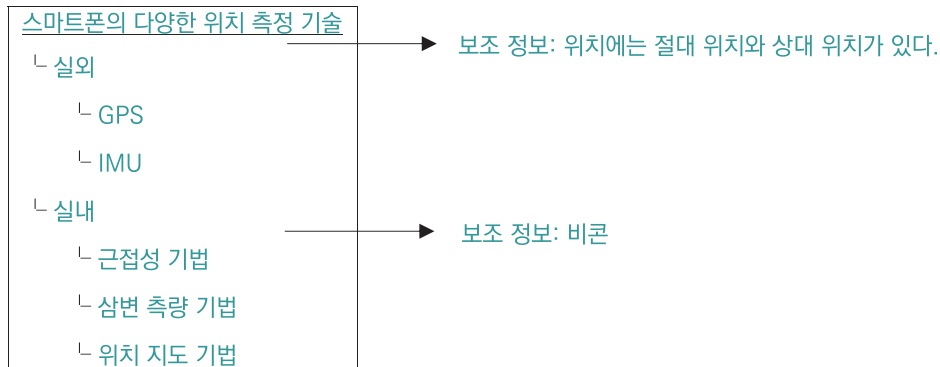
따라서, 문장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레고 조립되듯이 누적되어 붙으면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것이다.

Topic 02. 행동 강령 로드맵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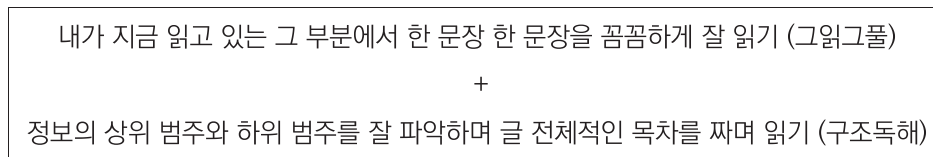
[1] 그읽그풀과 구조독해 모두 필요하다.

글의 구조를 파악했다면, 전력 분석이 다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일관적인 글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독해해야 하는지, ‘행동 강령’을 수립해야 한다. 일단 행동 강령을 수립하기 전에 글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할지 로드맵을 세우고 들어가도록 하자.

최종적인 목표는, 핵심 정보 (화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화제를 설명할 때는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범주가 갈라질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글의 목차를 짜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의 목차만 파악하면 안된다. 각각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문장들을 연결하며 누적시켜 그 범주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구조독해와 그읽그풀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2] 내가 주도하는 독해가 필요하다 : 핵심 정보를 기준으로

또한, 글에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는 점도 독해 행동 강령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포인트다. 내가 이 글에서 어떤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잡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p.39에서 이미 각 화제 패턴별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PS, QA 구조는 매우 쉽다. 그냥 P가 나오면 S를 찾으면 되고, Q가 나오면 A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패턴 1의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멀리 갈 필요 없고, 앞에서 봤던 예시 지문 (p.45)의 코멘트를 보면 된다. 그 지문에서 그냥 ‘아 위치 측정 기술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로 사고가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기술은 위치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건데?’였다.

QA 지문이 왜 쉽게 읽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 뚜렷한 목적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 매우 자명한 목적인 것이다. 평서문형으로 화제가 제시되는 패턴 1의 경우, 그 독해의 목적을 스스로 잡아야 하기에 더 어려운 것이다. 평서문을 의문으로 바꿔서, 그 의문을 해결하러 들어가는 독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은 위치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건데?’처럼 말이다.

Topic 03. 로드맵을 기반으로 행동강령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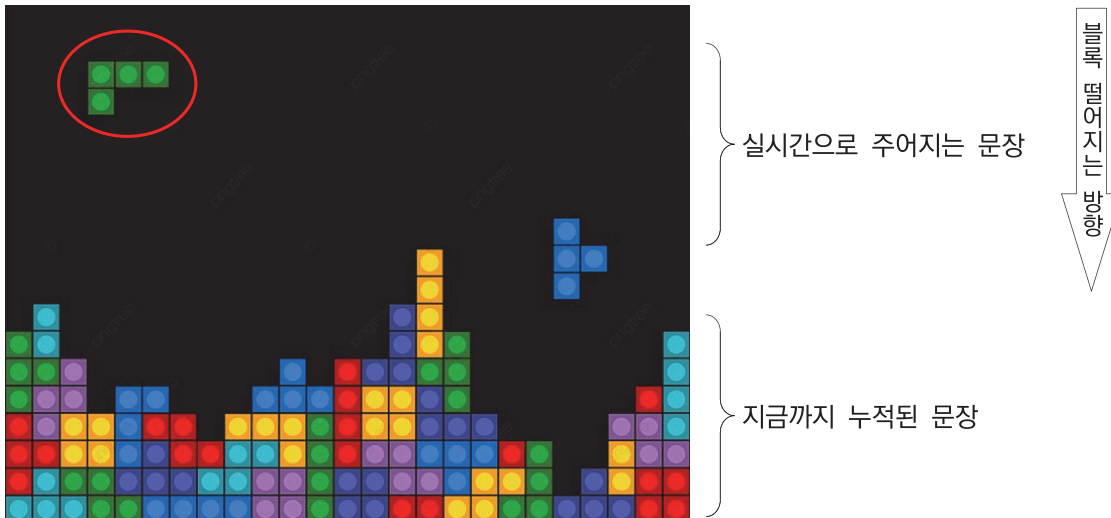
[1] 문단 독해, 문단 간 관계 파악 : two-track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잘 읽기 (그읽그풀)
+
정보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잘 파악하며 글 전체적인 목차를 짜며 읽기 (구조독해)

앞서 로드맵을 수립할 때 이렇게 “각 문단을 잘 읽고,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의 목차를 짜듯이 독해하자.”라고 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테트리스 게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테트리스 게임, 독해와 닮아있다.

글을 읽는 사고 과정은 테트리스 게임의 원리와 닮아있다.



이 테트리스 게임은 글 초반부를 지나, 중반부를 읽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의 사고를 가장 잘 표현한 이미지다. 테트리스 게임은, 그때그때 랜덤으로 주어지는 블록을 이미 맞춰져 있는 블록들에 그 모양을 고려해 잘 끼워 맞춰야 하지 않나? 비문학 지문도 똑같다. 저렇게 랜덤으로 떨어지는 블록들이 바로 나에게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문장인 것이고, 먼저 떨어져서 맞춰냈던 블록들이 지금까지 누적된 문장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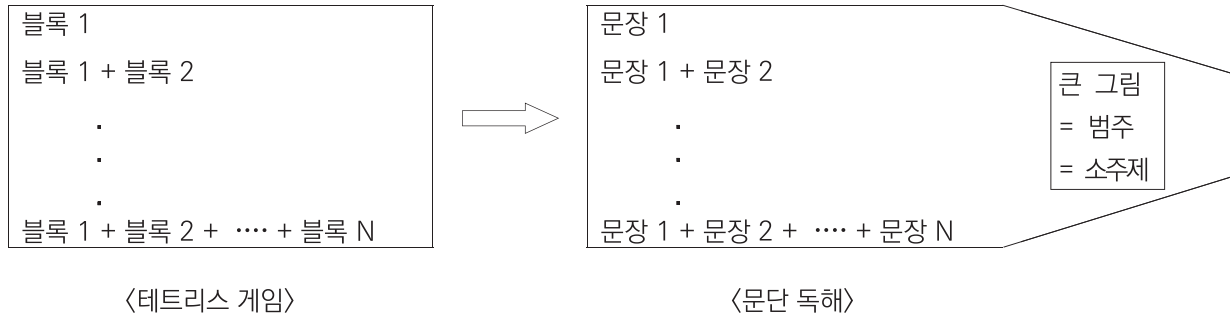
→ 나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문장들은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읽기 전에는 알 수 없다.

→ 여기서 떨어지는 블록들과 이미 쌓여있는 블록들이 맞물리는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쌓아버리면 결국 빠르게 GAME OVER 된다.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N번째 문장과 N+1, N+2...N+k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쌓으면 결국 수능에서 GAME OVER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문장들을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이 ‘이전 문장들이 쌓여온 형태를 고려해’ 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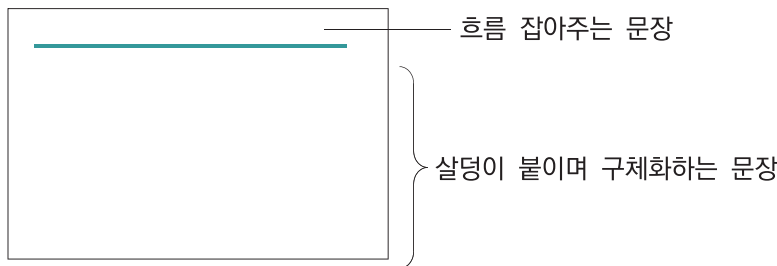
[3] 각 문단을 잘 읽자 :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문장, 연결하고 구분하며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각 문단에서는 테트리스 게임에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각각의 조각이 실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문장이라고 보면 된다. 저렇게 다음 문장은 이전까지 누적되었던 문장을 바탕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문장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앞 문장과 연결되서 재진술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이면 하나로 모으고, 구분되는 내용이면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붙이며 체계적으로 문장을 누적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고 연결하며 그 문단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범주에 따라 체계를 만들며 조직화한다. 그렇게 문장을 하나하나 체계 있게 테트리스 하듯이 누적하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 (각 문단의 범주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보 속에서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하위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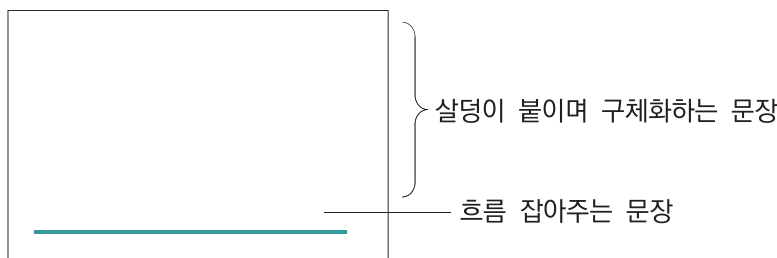
이때,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CASE 1 |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문단 초반부에 있는 경우 (두괄식)



→ 흐름 잡아주는 문장으로 확보한 세부 범주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문장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확보한다.

CASE 2 |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문단 후반부에 있는 경우 (미괄식)



→ 일단 문장을 누적시키면서 '지금 이 문단이 어떤 범주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다가 그 흐름을 정리해주는 문장이 나오면 땡큐. 이 문장으로 '아 N개 문장이 그려낸 큰 그림이 그게 맞았구나.'하면 된다.

CASE 3 |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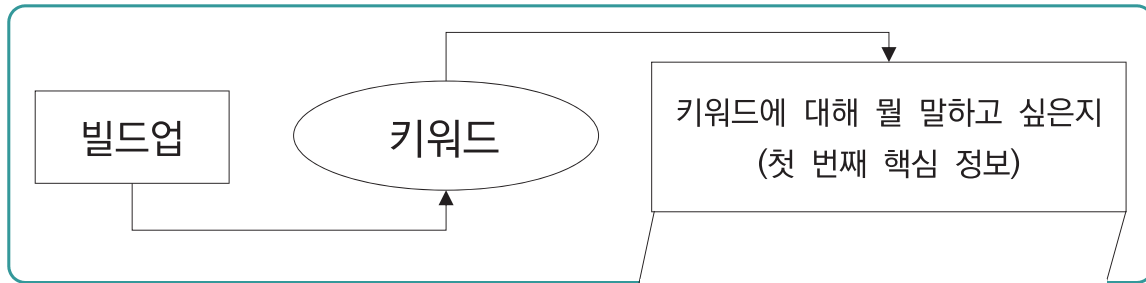
→ 문장을 누적시키면서 '지금 이 문단이 어떤 범주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면 된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흐름 잡아주는 문장이 없다고 해서 문장 N개를 각각 따로 보고 파편화 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문장을 누적시켜서 붙이다 보면 그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범주가 잡힐 것이다.

[4] 잘 읽은 각 문단, 붙이자 :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핵심 정보의 목차를 그려야 한다.

각 문단을 잘 읽었다면, 문단과 문단을 붙일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글의 목차를 짜면서 읽는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문단에서 문장을 누적해서 뽑아낸 정보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는 것이고, 그 퍼즐 조각이 질서 있게 맞춰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 큰 그림은 핵심 정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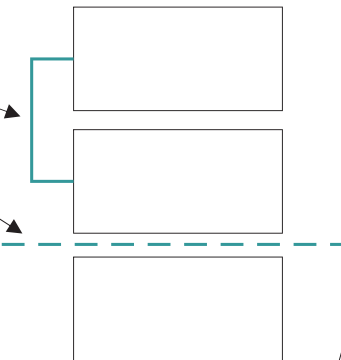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 문단은 이전까지 누적되었던 문단을 바탕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테트리스 게임에 빗대서 문단 독해를 설명했었는데, 문단 간 연결도 이와 같다. 각 문단에서 문장을 N개 누적시켜 완성한 소주제 각각이 테트리스 게임의 블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글 초반부에 이런 사고를 거쳐 글의 첫 번째 화제를 도출해낸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에게 문단들이 떨어진다. 읽어보니 핵심 정보를 계속 구체화한다. 그 핵심 정보 안에서 또 세부적인 범주가 나뉘지며 문단이 쪼개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읽다가 새로운 문단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전 핵심 정보에 대한 서술이 종결되고 새로운 핵심 정보가 등장.

키워드에 대해 뭘 말하고 싶은지
(두 번째 핵심 정보)

다음 문단들은 두 번째 핵심 정보에 소속시키기

이런 느낌으로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 파악을 통해 한 핵심 정보 내에서의 목차, 지문 전체적인 목차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